

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계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「전국자치복권」을 2004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발행주체 :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
- 판매지역 : 전국
- 발행규모 : 700억원(즉석식 350, 인터넷 350)
- 액면금액 : 500원, 1,000원, 2,000원
- 1등 당첨금 : 5,000만원(액면금액 500원/1매기준)
1억원 (액면금액 1,000원/1매기준)
5억원 (인터넷 추첨식 복권)
- 당첨금 지급한도 : 발행액의 51.5%
- 발행조건 : 정부의 복권정책에 따라 탄력적 적용

5. 검토의견

-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
-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,
-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,
 즉석식 복권 320억원과 인터넷 복권 300억원을 발행하여 68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,
 2002. 12. 2일 출시된 로또복권의 열풍으로 로또복권이 복권시장의 70%이상을 점유함에 따라 기존 발행복권의 판매실적이 금년도 승인액 2,200억원 대비 28.2%로 저조하였으며,
- 10개 복권발행기관 연합으로 발행하는 로또복권은 3조 2,240억원을 판매하여 자치복권에 배당된 수익금(배분율 6.07%)은 635억원에 달하고 있음.
- 2004년도에는 전국 16개시·도 공동으로 예상판매수익금 111억원을 목표로 700억원(즉석식 350, 인터넷 350)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,
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,

- 내년에는 “복권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”이 제정되어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가 금지되고,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견되며, 로또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자치복권 판매전망과,

- 지금까지 우리 도에 배정된 복권판매 수익금은 얼마이고,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2004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